

◆ 성체와 성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르침이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각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것 중의 하나가 성체 성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다른 교리가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체가 아닌 단지 상징이나 의미로 또는 미사 성제도 예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대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단지 상징이며 의미며 예식에 불과할까요? 분명 그들의 말은 거짓말 입니다.

첫째,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상징으로, 의미로만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생명 자체를 ‘실체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모습을 통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실체적으로’ 우리와 하나로 일치 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하신 말씀을 단지 말씀만으로 주시지 않고 ‘당신 계약으로 맺으셨다’는 점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성경엔 많은 말씀과 단어, 구절이 있지만 이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신약(옛계약, 새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바탕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마르코 복음 12장25절에 ‘내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구약(옛계약)의 대표가 시나이 산에서 맺은 십계명이라면, 새계약은 바로 최후의 만찬 다락

방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의 중재로 옛계약을 맺을 때 소를 잡아 그 피를 받아서 계약의 당사자인 하느님(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반씩 뿌립니다(탈출기 24장 5절~8절)

그런데 새계약(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다는 계약의 말씀을 ‘당신의 피로’ 인준하십니다. 당신과 우리사이에 맺는 새계약을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뿌려 영원한 계약으로 봉인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찬미 받으소서!

셋째,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많은 반대와 거부를 받았습니 다. 요한 복음에 나타나듯 많은 제자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요한 6장 66절).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말씀을 단지 상징이나 의미라고 축소시키거나 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 떠나가는 것을 감수 하시면서까지 성체 성혈에 대한 당신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의 영혼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당신 생명 자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빠스카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하십니다(루카 22장 15절).

넷째, 성체 성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관해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를 행하라’ 이처럼 단순하고 직적점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 들일 것인가 안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성체와 성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의지적, 존재적

굴복입니다. 성체와 성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22장 37절)라고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당신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

▣ **본당신부 단상(斷想)**

신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신부님은 어떤 계기로 신부님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이 많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을 것입니다. 사제가 된 계기보다는 “어떤 사제로 살아야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은총을 입었더라도 오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매일 매일 사제직의 숭고한 의미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때는 더욱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사제에게 협력해야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성실한 사제가 되도록 공동체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품성사 때 받은 은총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6월 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3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305.00
182(20) 184(20) 188(20) 194(20) 196(20) 205(20) 206(20) 207(20) 208(20) 214(20) 219(5) 224(100)
합 계 : \$ 1040.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 6월 구역모임 공지

- ▶ 캠브리지구역 : 27일(토) 6PM 박용대형제대
- ▶ 브랜포드구역 : 17일(수) 1PM 모화공원
- ▶ 키치너 구역 : 27일(토) 6PM 교육관
- ▶ 워털루 1구역 : 미정
- ▶ 워털루 2구역 : 20일(토) 6PM 워털루 공원
- ▶ 워털루 3구역 : 27일(토) 7PM 오세충형제대
- ▶ 워털루 4구역 : 27일(토) 6PM 김호철형제대

◎ 성모 동산 건립 기금 모금 안내

대략적인 산술에 따르면 ‘성모님 동산’을 꾸미는데 \$10,000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독지가의 자선기금 등으로 단박에 해결하기 보다는, 비록 작더라도 스스로의 정성을 담아 우리들의 성모님을 공동체 안에 모시는 것이 더 큰 뜻 깊다고 봅니다.

따라서 6월 7일 삼위일체 대축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0 개월간 ‘성모 동산 건립’ 기간으로 정하고 지향기금봉투를 마련하여 성전 현관 입구에 매 주일 비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바랍니다.

◎ ‘사제의 해’ 개막과 ‘사제성화의 날’ 안내

오는 6월 19일(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교황청 성직자성의 권고와 한국 주교회의 결정에 의한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또한 ‘사제의 해’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사제성화의 날’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신원과 사명에 합당한 성덕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도록 격려하고, 교구 공동체 전체가 사제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에 행사를 열어 사제들이 사제직의 정체성과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와 희생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날입니다. 6월 19일(금) 오후 8시 미사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바뇌 성모의 기도회 안내

▶ 6월 19일(금) 8:30 PM

본당 유일의 신심단체입니다. 함께 모여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범을 배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6월 17일(수) / 6월 26일(금) 미사 후

평일미사에 참여하시면 성경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성가대 단원모집

- ▶ 단원 모집: 성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남녀 교우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7:30PM 교육관
매주일 4 PM 대성전

◎ 후보 및 교우주소록 광고 접수합니다.

광고 접수문의 및 관리자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519 883 8488 Ext 1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7월 안내 담당은 키치너구역입니다.

- ▶ 8월 : 워털루 3구역
- ▶ 9월 : 워털루 1구역

시간 봉사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입니다. 항상 미사 1시간 전에 나와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할 미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캠브리지 구역 : 6월
- ▶ 브랜포드 구역 : 7월
- ▶ 워털루 1구역 : 8월

봉사는 1달에 2회이고, 격 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 온타리오주 한인 8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6월 30일(화) 12:30 PM
장소 : Carlisle GC

◎ 인플루엔자A(H1N1)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신자들 간에 악수, 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6호

2009. 6. 14.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미 사 전 레

해 설 이 명희 차주 해설 노 재현

성 가

입 당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봉 헌 (215) 영원하신 성부
성 체 (206) 성심의 사랑
퇴 장 (399) 주님 안에 하나

화 답 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부 속 가 매일 미사 참조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독	서
6월 14일	이 민	이활란
6월 21일	장명길	장용경
6월 28일	한택중	한재희

	봉	헌
6월 14일	박용대	박명옥
6월 21일	이 민	이활란
6월 28일	장명길	장용경

	복	사
6월 14일	박규환	이현재
6월 21일	류지현	노승범
6월 28일	구한흠	강수현

	친	교
6월 7일	신비팀	6월 14일 환희팀
6월 21일	영광팀	6월 28일 장미팀